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 닭 뉴캐슬병예방 분무접종기 설치관련 반자동 분무접종기도 과태료 대상 제외 건의

최근 닭뉴캐슬병 예방 차원에서 자동분무기 미설치 부화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점 관리대상으로 관리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닭 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에도 자동분무접종기의 설치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반자동 분무접종기를 갖추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본회가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예방약 공급 중단 조치와 과태료 부과원칙이 고수될 경우 오히려 혼선이 초래되어 닭뉴캐슬병 방역대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북한 양계산업 남한의 60년대 수준 북한농업 생산기술 심포지움에서 밝혀

북한의 양계산업이 남한의 60년대 초 수준과 비슷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축산기술연구소 육종번식과 정일정 과장은 지난 8일 북한농업연구회가 개최한 북한농업의 생산기술 제고방안 심포지움에서 이같이 발표하였는데 양계를 포함한 가금산업은 그동안 북한에서 소, 돼지 보다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나 최근 북한축산이 곡물부족으로 인해 농후사료 보다는 풀사료에 의존하다보니 기금류(양계) 사육을 중시해오던 것을 면양이나 산양, 토끼 등의 사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북 축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관련내용 본문 120페이지 참조)

**닭고기 포장 유통의무화에 대한 의견제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산 둔갑 막아야**

닭고기 유통시 매장의 비위생적인 처리와 중국산 가공육 수입 개방 및 수입닭고기의 국내산 둔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모든 닭고기(통닭, 절단육)를 개별, 소매포장하여 유통하자는 의견이 계육관련 업계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포장의무화를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규정할 경우 수입닭고기가 국내산 닭고기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의 2차오염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본회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계설비비를 비롯 인건비 등이 추가됨에 따라 원가에 있어 상승효과를 가져와 외국 닭고기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시되었다.

**닭 경제능력검정 세부실시 요령 개정**

**우수계종에 대한 포상규정 삽입**

지난 1988년 4월에 닭 경제능력검정 세부실시 요령이 개정된 이후 정부조직개편, 전산화, 자동화 등 많은 변화가 진행되면서 현실성을 반영한 세부실시 요령(안)이 지난 5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확정되었다.

이번 내용중 우수계종에 대한 포상규정과 규정외의 형질 조사사항 내용이 신설되어 육종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며, 산란계의 경우 무창 자동화 계사 신축에 따른 점등프로그램 삽입, 육계의

경우 체중측정에 대해 검정종료일을 단축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정되었다.

**육계가격 1,800원으로 고가 유지**

**질병, 성장지연, 수입량 주춤이 주요인**

최근 육계 산지가격이 1,800원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생산자들을 적자행진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장마기간이 짧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닭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면에는 경기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다시 ND가 극심한 피해를 주고있으며, 무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육계의 성장지연, 5월까지 월 평균 6천톤이 넘게 들어오던 수입닭고기가 6월에는 5천톤으로 다소 주춤했던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같은 초유의 가격은 IMF가 밀려온 지난 1998년 3월 1,800원을 기록한 후 처음있는 일이다.

**본회 채란분과위원장에**

**심준식 전국계우회연합회장 추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에서 박찬우 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이끌어오던 채란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심준식 전국계우회연합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최근 난항을 겪어오던 생산자들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계우회연합회와 연계하여 난가문제 등 채란업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심준식 회장은 수도권 난가정보위원으로 김선웅, 송복근 씨를 선임하고 상인단체는 물론 지방 난가정보위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계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양계**